

2023-03-27 (2023-11호)

03월 27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은행권 사태·분기말 수급 불확실성 따른 변동성 주의보

서울, 3월2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은행 시스템 불안 전개 양상과 월말 수급 따라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75-1,32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우려는 잦아들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은행 시스템 불안이 촉발한 금융 및 실물경제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관련 뉴스 헤드라인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 심리는 몹시 취약해져 있다.

지난주 연준 이벤트 직후 역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청산 이후 시장 포지션이 가벼워진 점은 달러/원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달러/원 상승 우호적인 재료가 나올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분기말 수급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주요 변수다. 최근 분기말 수급이 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역내외 수급 여건은 이번 주 원화에 있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주는 후반에 시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31일 한국 2월 산업활동 동향, 중국 3월 국가통계국 PMI, 3월 EU CPI(예비) 미국 2월 PCE물가지표와 작년 4분기 외환 당국 개입 내역 등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주중에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실리콘밸리은행 및 시그니처은행 파산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및 마틴 그룬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분기 마지막 주 환율은 녹록지 않은 변동성 장세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 유춘식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27일(월)

- ⊙ 금융위원회: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12:00)
- ⊙ 한국은행: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 (BOK이슈노트 2023-9) (12:00)
-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3월) 발간 (12:00)
- ⊙ 금융감독원: 금감원, 가상자산 이해 및 감독역량 확충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배포시)

3월28일(화)

- ⊙ 금융감독원: '23.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 (10:00)
- ⊙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10:00)
- ⊙ 한국은행: 2023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기획재정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14:30)
- ⊙ 한국은행: 2023년 5차(3.9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3월29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금융감독원: ESG펀드 공시기준 도입 T/F 출범 (06:00)

3월30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금융감독원: 2022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06:00)
- ⊙ 금융감독원: '22.12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12:00)
- ⊙ 한국은행: 2022년도 연차보고서 정부 제출 및 공표 (12:00)
- ⊙ KDI: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14:00)
- ⊙ 기획재정부: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17:00)
- ⊙ 한국은행: 2023년 4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3월31일(금)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07:3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통계청: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 (10:00)
- ⊙ 기획재정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11:00)
-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3.3 -논고: 미 통화정책 긴축이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12:00)
- ⊙ 한국은행: 2023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 (14:30)
- ⊙ 한국은행: 2022년 4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배포시)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2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1~2월		-4.0%
3월2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월		-0.4
3월27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2월	3.2%	3.5%
3월27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2월		3.6%
3월27일	23:30	미국	델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3월		-13.50
3월28일	21:30	미국	도매재고 잠정치	2월		-0.4%
3월28일	21:30	미국	소매재고 잠정치 (자동차 제외)	2월		0.1%
3월28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1월		-0.1%
3월28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1월		-0.5%
3월28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3월	101.0	102.9
3월29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24일 주간		221.0
3월29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2월		8.1%
3월30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3월		0.72
3월30일	18:00	유로존	경기심리지수	3월		99.7
3월30일	18:00	유로존	산업심리지수	3월	0.5	0.5
3월30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3월		-19.2
3월30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Q4	2.7%	2.7%
3월3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20일 주간		191k
3월31일	08:30	일본	도쿄 CPI	3월		3.4%
3월31일	08:30	일본	실업률	2월		2.4%
3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YY SA	2월		-3.8%
3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2월		6.3%
3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3월		52.6
3월31일	14:00	일본	건축주문 YY	2월		-14.0%
3월31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2월		6.6%
3월31일	18:00	유로존	CPI NSA	3월		121.23
3월3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2월	6.7%	6.7%
3월31일	21:30	미국	개인 소득 MM	2월	0.3%	0.6%
3월31일	21:30	미국	개인 소비 MM	2월		1.1%
3월31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YY	2월		4.7%
3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3월		43.6
3월31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최종	3월		63.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27일 (월)

- ⊙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서 연설 (28일 오전 2시)
-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이사, 워싱턴앤리대학교 주최 행사서 강의 (28일 오전 6시)

3월28일(화)

-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FIN/SUM 2023 행사에서 연설
- ⊙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 실리콘밸리은행 관련 청문회 개최.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등 참석 (오후 5시45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BIS 이노베이션 허브 유로시스템 센터 개소식에서 연설 (오후 10시15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상원 금융업위원회 청문회 출석 (오후 11시)

3월29일(수)

-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실리콘밸리은행 및 시그니처은행 파산 관련 청문회 개최.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마틴 그룬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등 출석 (오후 11시)

3월30일(목)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39차 연례 경제정책 컨퍼런스서 연설 (31일 오전 1시45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버지니아 CEO협의회 분기 회의서 연설 (31일 오전 1시45분)

3월31일(금)

-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컨퍼런스서 연설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이탈리아 오세바토리오 페르마네테 조반니-에디토리 주최 행사에서 기조연설 (1일 오전 0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휴사토닉 커뮤니티 컬리지 주최 행사에서 경제 전망 및 통화정책 관련 연설 및 토론 참여 (1일 오전 4시5분)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중서부경제학회 87차 연례 회의서 경제 전망 및 통화정책 관련 연설 (1일 오전 6시45분)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격동의 1분기가 저물다

지난 1월 저가 매수세로 급등했던 미국 S&P500지수는 최근 은행권 위기 여파로 올해 첫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채 1분기를 마감할 전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은행권 우려 속에 S&P500 지역은행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34.9%나 급락했다.

금리 고점이 대다수의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돼서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은행권 혼란 속 신용 경색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주 정책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혼란이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 경색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성장과 경제 전망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 ⊙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은행권 불안

SVB 파산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 급락 등에 따른 은행권 불안이 UBS의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발표로 얼마간 완화됐지만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국립은행 총재는 UBS의 성공적인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를 위해 향후 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권 긴장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신용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패닉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급속한 루머와 우려 확산에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는 소셜미디어가 뱅크런에 있어 '완전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 AT1 시장 위기

UBS의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과정에서 크레디트스위스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AT1)의 가치를 전액 상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같은 소식에 2750억달러 규모의 전체 AT1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파산할 때 은행 자본 구조상 AT1 채권 보유자가 주식 보유자보다 우선권을 갖지만, 이번 합병에선 크레디트스위스 주주들만 32억3000만달러를 받게 되고 AT1 보유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동안 AT1 주요 발행처였던 홍콩, 싱가포르, 유럽연합, 영국 당국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개입했지만, AT1 채권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이런 가운데 크레디트스위스 AT1 채권자들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오는 28일에는 미국의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01.0으로 전달의 102.9보다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31일에는 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2월 근원 PCE 물가지수의 전년비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4.7%, 전월비 상승률은 전달의 0.6%보다 약간 낮아진 0.4%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 ◎ 도쿄 인플레이션

내달 공식 취임하는 우에다 가즈오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언제 완화 정책 종료를 신호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는 31일에는 도쿄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신선식품을 제외한 도쿄의 3월 근원 CPI 상승률이 3.1%로, 전달의 3.3%보다는 약간 낮지만 10개월 연속 일본은행 목표치 2%를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자들이 일본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하고 있고 최근 미국과 유럽 은행권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우에다 차기 총재는 적어도 당분간은 정책 전환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시장진단)-달러/원 지지선 무너지며 30원 급락... 도비시 연준 평가 속 역외 대거 롱 스탭 추정

서울, 3월2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23일 낙폭을 대거 키워 5주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일비 9.7원 낮은 1,298.0원에 개장한 환율은 연신 뒷걸음질치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27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성명서에서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문구를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로 대체했다.

또한, 연준 금리 점도표에서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5.1%로 제시해 최근 은행 불안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인정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부문 위기에 따른 신용위축이 금리인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이를 두고 도비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연준 관련 보고서에서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단기간 안에 줄어든다면 견조한 거시 지표로 인해 연준이 5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긴축 사이클의 조기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ofA는 미국 최종금리 전망을 당초 5.25~5.5%에서 5.0~5.25%로 낮췄다.

미국 채권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중 달러/원 환율은 개장 직후 기록한 일간 고점인 1,300원선에서 1,276원선으로 수직낙하였다.

미국의 긴축 사이클의 조기 종료 전망 속에서 역외발 달러 롱 처분이 공격적으로 진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약 8만5천계약을 순매도 중인 가운데 증권사의 달러 매도세도 꾸준히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A 은행 외환딜러는 "오늘은 외은 중심으로 달러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증권사 매도세도 있다"라고 말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어제부터 기미가 있긴 했는데 FOMC회의 끝나고 역외가 대거 포지션을 푸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 약세 조정을 받을 때 달러/원을 좀 더 빨리 파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C 은행 외환딜러는 "미국 금리가 이제 잘 못 오를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은 3월부터 지지 받았던 1,290원대 초반이 깨지니까 롱 스탭이 나오고 그러면서 환율이 밀려 지지선이 깨지니 또 추가 스탭이 나오고 그런 흐름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연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역외 롱 스탭 영향에 환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은행 시스템 불안이 여전하고 향후 경기 전망도 한층 불투명해진 만큼 환율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1,270원대는 우선 지지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위의 C 은행 외환딜러는 "엘런 재무장관 발언을 보더라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스탭이 어느정도 일단락되면 달러/원 1,270원대는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0.61%, 유로화 +0.87%, 엔화 +0.84%, 위안화 역내 +0.13%, 달러지수 -0.70%
- 국내 주가: 코스피 +0.80%, 코스닥 +3.35%
- 미국 주가: 다우존스 +1.18%, 나스닥 +1.66%, S&P500 +1.39%, 러셀2000 +0.52%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26.1 bps, 10년 -19.9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5.3 bps
- 미국 국채: 2년 -6.9 bps, 10년 -1.9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39.9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3.78%, 금 선물 -0.54%, 레피니티브/코어커머리티CRB지수 +1.60%